

# 밀사로 인한 피해를 줄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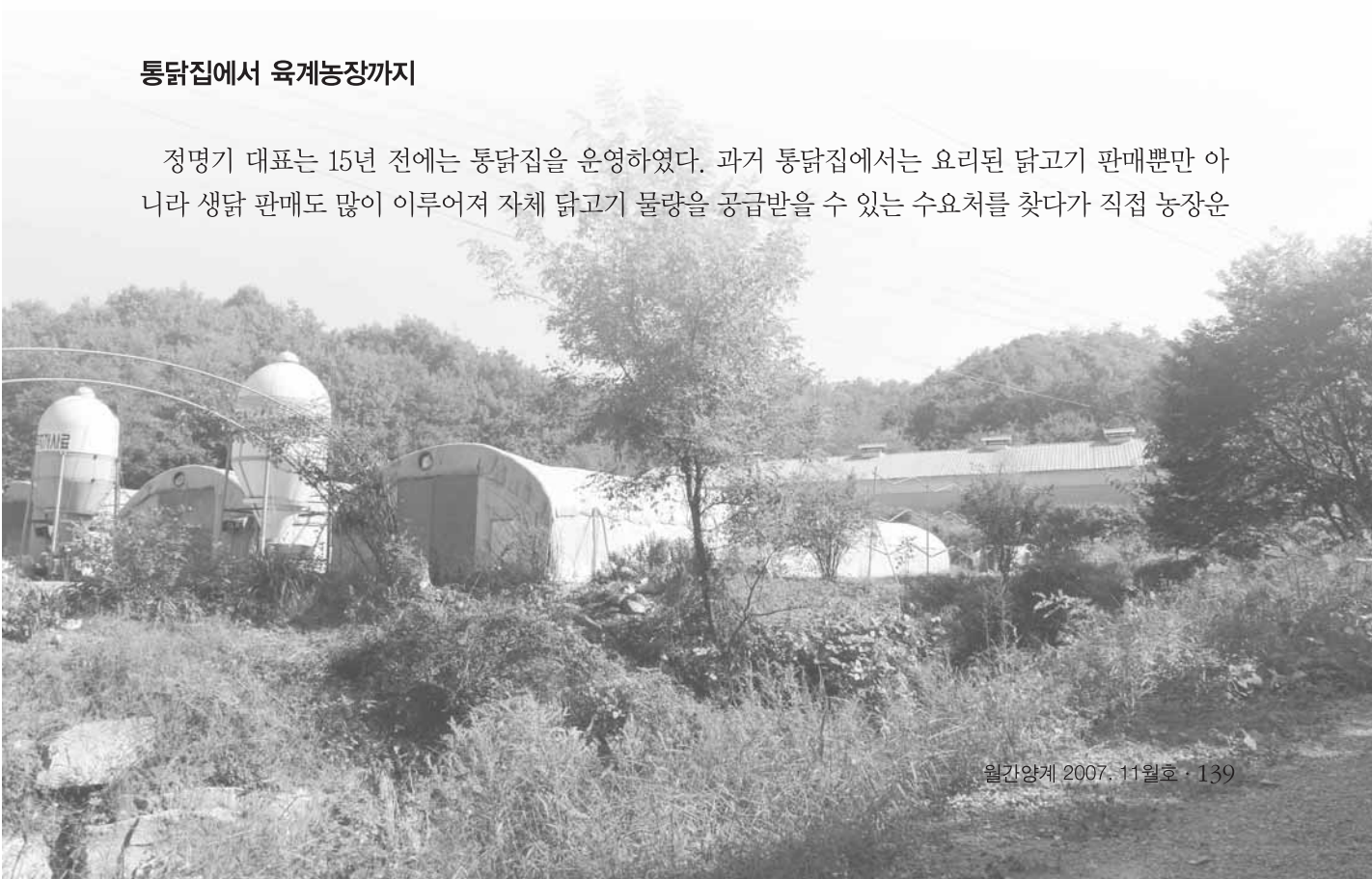
— 농장주의 세밀한 농장관리는 기본 —

육계사육에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계사시설, 환기, 병아리품질, 사료선택 등 몇 가지 사항들을 나열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본이 되고 밀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양가’를 꼽을 수 있다. 사양가는 병아리 입추부터 출하까지 사육방법에 있어 선택과 결정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총책임자로서 사양성적으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번호에는 이천지역에서 위치한 명성농장을 방문하여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육비결을 들여다보았다.

## 통닭집에서 육계농장까지

정명기 대표는 15년 전에는 통닭집을 운영하였다. 과거 통닭집에서는 요리된 닭고기 판매뿐만 아니라 생닭 판매도 많이 이루어져 자체 닭고기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요처를 찾다가 직접 농장은



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7천수 규모를 시작으로 육계사육에 흥미를 보이며 전업농으로 전환하여 첫해년도에 2만5천수, 점차규모를 늘려 현재에는 3만5천수까지 늘리면서 올해로 13년째 육계사육에 몸담고 있다.

이천 호법면에 있는 명성농장은 이천시내와는 15분 거리에 있지만 외부지역과 떨어져 있는 산속으로 소음이 적고 농장 옆으로는 개울이 나있어 더운 여름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준다. 농장 전체면적 약 6,600㎡로 자택 1채와 9,500수 입추규모의 유창계사 2동(13㎡×45㎡), 3,500수 입추규모의 보온덮개계사 4동(6㎡×40㎡)으로 총 3만5천수 규모의 중소형 육계농장으로 계사구조나 환기시설 등 사양시설에 있어서 일반 사육농장과 외형상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육계를 잘 키우는 사람을 꼽는다면 이천지역에서는 정명기 대표를 손에 꼽는다. 10여년 이상 사육을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다

그럼 과연 첨단시설이 아님에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정명기 대표는 평범하지만 원칙에 있다고 말한다. 바로 세밀한 관리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입추가 시작되면 농장내 위치한 사육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하며 계사의 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병아리가 입추되어 출하되는 시점까지 외부출입을 철저히 금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외부 질병유입



▲명성농장 정명기 대표

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사육밀도에 있어서도 평당 70수 정도를 사육하는 일반적이지만 명성농장은 55수 정도로 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군의 계분 개선과 육질향상을 위해 수분흡수율이 좋은 숯가루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이한다.

이런 몇 가지 철칙을 기초로 하여 오랜 기간동안 농장을 운영한 결과 사양가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으며 밀사를 지양함으로써 계사내 환기 상태 개선, 증체율 향상, 폐사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출하되는 닭들의 충아리 발생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상품성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출하이후에는 청소시기를 미루지 않고 다음 입추를 준비해 둔다. 남아있는 사료는 빠른 시일내에 다시 회수하도록 하여 사료허실을 줄이고 있으며 계사내부는 철저히 구석구석 소



▲출하이후 깔끔히 청소하여 다음 입주를 준비중에 있다. 명성농장은 보온덮개 계사로도 우수한 사양성적을 보이고 있다.

독을 실시하여 계분처리는 일정기간 발효시켜 4~5회전 정도 깔짚은 추가하여 사용하고 이후 계분을 처분하고 있다.

### 저밀도 사육, 생산성 향상으로 가능성 있다

닭고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증가하는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의 밀사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과거에는 저밀도 사육방식이 주를 이뤘으며 그 방식을 정명기 대표는 지금까지도 고수하며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명성농장의 출하시점은 1.75kg가 되는 시점이며 출하되는 닭들이 건강하다. 일반적인 농장의 닭출하일령과 비슷한 32~33일령이지만 밀사를 하지 않고 닭들에게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제공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육성율도 98%이상

을 항상 유지하는 편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료 효율은 좋아지고 허실은 줄어들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정명기 대표는 '사육밀도가 기존보다 적으면 면적당 남는 이익이 감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과밀도 사육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저밀도 사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는 앞으로 계사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시설개선만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오지는 않는 다고 강조한다. 결국 기본이 되는 농장주의 세밀한 관심과 사양 관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취재 | 기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

